

# 설교

“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”



주님 품 안에서...  
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

게르솜 - 쫓아내다

גֵּרְשָׁם

엘리에셀 -  
하나님이 도우신다

אֱלִיעֶזֶר







3:16-17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,  
그들에게 일러라. '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 
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 
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'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 
전하여라. '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.  
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,  
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 내어,  
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 
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 
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 
작정하였다' 하여라.

3:18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.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'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,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,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, 허락하여 주십시오' 하고 요구하여라.

4:1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. "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, 저의 말을 듣지 않고, '주님께서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' 하면 어찌합니까?"



3:18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 
(믿을) 것이다...

4:8 (만약) “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 
믿지 않고,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 
받아들이지 않더라도, 두 번째  
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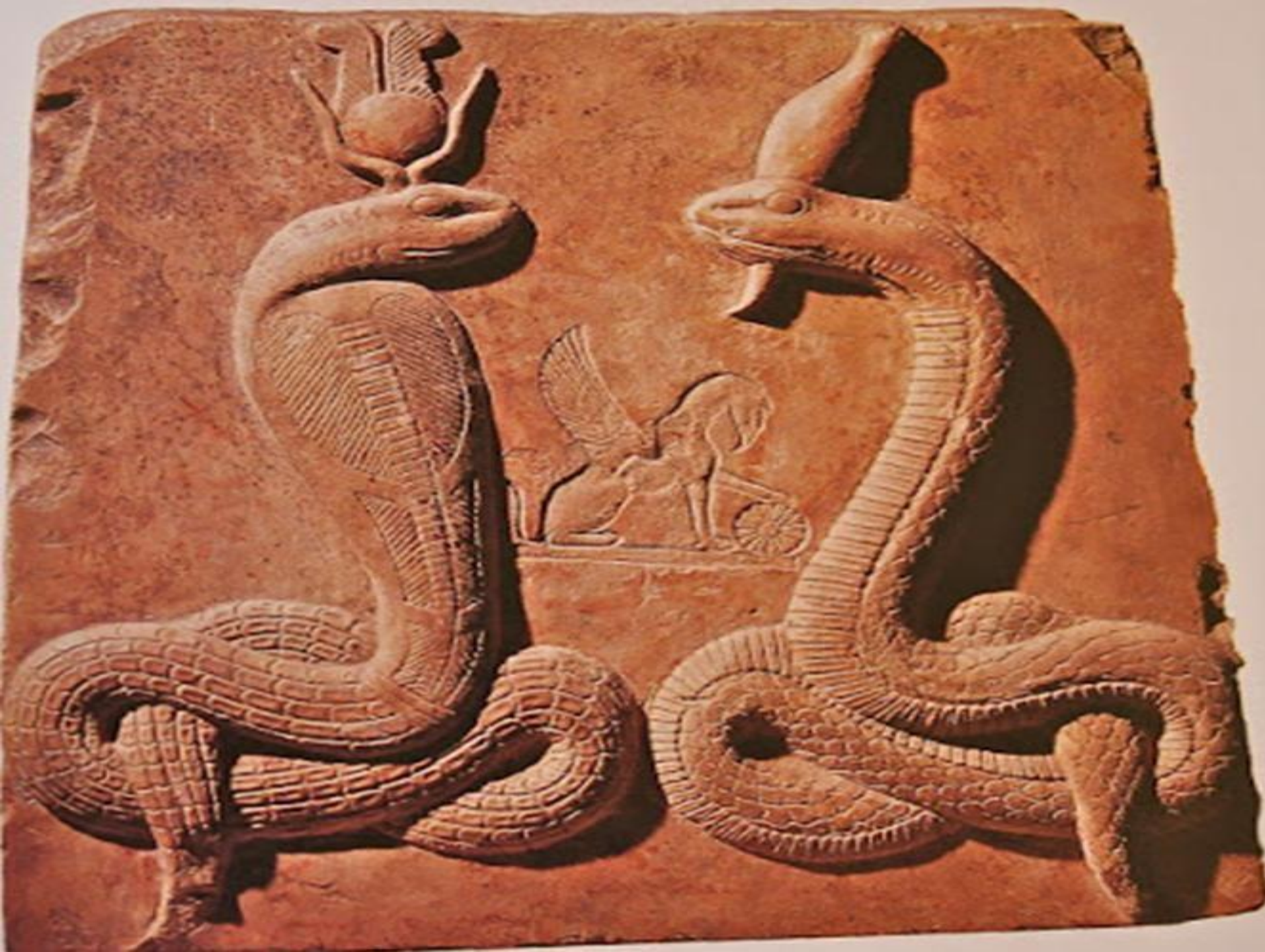
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,  
4:9 (만약)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,  
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 
땅에 부어라. 그러면 나일 강에서  
퍼온 물이, 마른 땅에서 피가 될  
것이다.”

4:30-31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 
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 
일러주고, 백성이 보는 앞에서  
이적을 행하니, 백성이 그들을  
믿었다. 그들은, 주님께서 이스라엘  
자손을 굶어살피시고 그들이  
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,  
앞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.















4: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.  
"주님, 죄송합니다. 저는 본래  
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. 전에도  
그랬고,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  
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.  
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 
사람입니다."

4:11 주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 
"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? 누가  
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 
이를 만들며,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 
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 
사람이 되게 하느냐? 바로 나 주가  
아니더냐?"

4:13 모세가 머뭇거리며 "주님,  
죄송합니다.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 
보내시기 바랍니다" 하고  
말씀드리니,



4:14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크게  
노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. "레위 사람인  
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? 나는  
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. 그가  
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. 그가 너를  
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.

